

**"...And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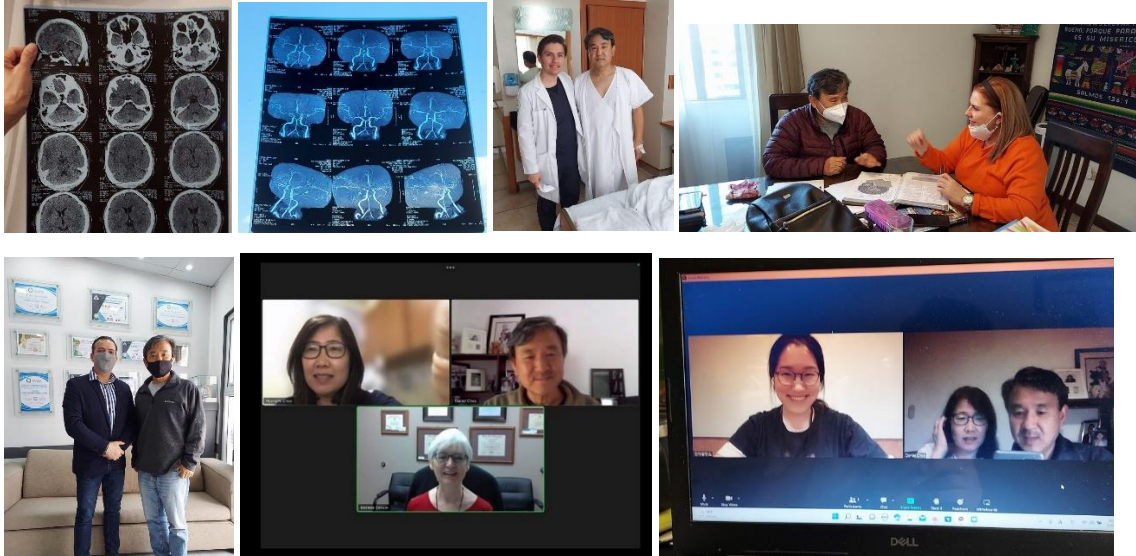
## 2022 년 성탄절 선교소식

###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들께

#### 1. 뇌졸중 (Stroke)으로 시작한 2022 년...

올 2022 년은 최남용 선교사가 1 월 31 일날 겪었던 뇌졸중으로 죽음을 잠시 생각하며 또 뇌졸중 회복 단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었던 특별한 한 해 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최남용 선교사의 상태가 지난 5 월 7 일 뇌사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된 영화배우 강수연 처럼 심각했던 상태였지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 최형미 선교사가 남편 최선교사의 상태를 빨리 파악하고 집에서 좀 더 쉬기를 원했던 최남용 선교사의 바람과 달리 4 시간만에, 즉 Golden time 안에 병원 즉시 수술을 받게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8 일간 병원에 입원해 머물러 있다가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뇌졸중 (Stroke) 으로 신학교 강의 및 모든 사역들은 중단되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많은 회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뇌치료 의사 Delgado 박사, 그리고 네 달 동안 언어재활을 담당했던 Everlyn schenbeck 박사, 그리고 3 달 동안 침을 뇌 주신 과테 한의사 유진열 원장등의 정성어린 치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기도로 특별히 만났던 Texas Tech University 의 언어 담당 교수인 Melinda Corwin 박사와 zoom 으로 하던 인터넷 상담과 처방등으로 이제 모국어인 한국어는 90 % 회복되었고, 영어와 스페인어는 약 75% ~80%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부족한 종을 하늘 본향집으로 부르시기보다 해야할 사명등을 잘 감당하기위해 아직 부족한 종을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2022 년을 보내고 새 해 2023 을 믿음과 또한 감사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다시한번 그동안 부족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또한 치료비를 위해 특별 선교헌금을 보내주신 모든 교회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 자신의 언어치료 과정과 회복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을 할 수 없었고, 또 글을 쓸 형편도 못 되었지만 그러나 2022 년 선교보고 편지에서는 이 한해를 보내며 제가 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사역들을 간단히 공유하고 또한 최근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최형미 선교사의 사역을 나누며 함께 기도해주시는 동역자님들과 교회에 다시 감사의 뜻을 전하려고 합니다.



## 2. 뇌졸중 (Stroke)으로 중단되었다가 회복되어져가며 감당하게 된 최남용 선교사의 몇몇 사역들...



### a. KWMC 에서 라틴 아메리카 디아스포라 세미나 인도...

올 초 부터 아니 작년 말 부터 KWMC 에서 주관하는 선교대회를 준비하시는 준비위원회에서 올 2022 년 7 월에 있는 선교대회에 와서 중남미 디아스포라에 관한 포럼과 강의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뇌졸중 이후 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아직은 제 건강상태를 조금 더 두고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었지만, 그 뒤 제 뇌담당 의사인 Dr. Delgado (나이는 젊지만 과테말라에서는 가장 뛰어난 분이라고 이야기 듣는, 그리고 오히려 미국과 스페인 및 남미에서도 많이 알려진 학자인데) 이 분이 당시 제 상황을 지켜본 후 많이 호전 되어 졌고 이제는 비행기 타기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컨퍼런스 준비하는 과정도 뇌에 좋은 exercice 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SETECA 신학교 역시 제가 워싱턴 선교대회에 (그전에는 시카고 세계선교대회라고 알려졌었지만) 다녀오는 것을 찬성하여주어, KWMC 준비위원회에 갈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린 후 7 월 13 일 날 "미주와 중남미 한인 디아스포라의 라틴 아메리카와 세계선교적 역할"에 관해 강의를 하였습니다. (강의 원고는 보기를 원하는

분을 위해 강의 PPT 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원고 참조**). 비록 제 기억력이 온전하지 않아 강의를 잘 할수 있을까 염려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오래전 제 맘에 주신 소원, 즉 중남미에서 자란 2 세와 1.5 세들을 올곧게 reach 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 생각하며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부족한 사람의 강의에 큰 도움을 주셨고, 워싱턴 선교대회에서 귀한 주님의 종들을 많이 만나게 해 주셨고 좋은 네트워크 관계도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b. Quezaltenango 한인 선교사님들을 위한 세미나 el Camino 에서의 세미나 인도 및 설교...**

두번째 사역은 최근 추수감사절 주말에 있었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건강을 많이 회복하게 해 주셔서 올 11 월 18-20 일 주간에는 과테말라 수도인 과테말라 시티에서 약 4 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Quezaltenango 에서 사역하시는 한인 선교사님들을 위한 세미나를 인도하러

다녀왔습니다. 세상과 교회 (Church and the World)란 제목의 강의는 요한복음 17 장과 또한 마태복음을 내용으로 하는 선교적 교회에 관한 세미나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에서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Quezaltenango 방문은 지난 18년 동안 이 지역에서 신실하게 사역을 하셨던 최상득 선교사님이 은퇴를 기리기 위함이었는데 오랜만에 귀한 한인 선교사님들과 세미나와 교제를 아름답게 나눌 수 있었고, 또 저희 SETECA 신학교의 교수로 있다가 이 지역의 분교 학장이며 또한 Iglesia Christina Jesus es el Camino 에게 귀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Osbel 목사님 교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세미나와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 3. 최형미 선교사의 사역...CAG (Christian Academy of Guatemala) 와 쓰레기 매립장 마을의 회복(La Restauracion)교회 사역...



a. CAG (Christian Academy of Guatemala) 크리스마스 컨서트...

지난 12월 8일 목요일은 현재 최형미 선교사가 교장으로 사역하는 선교사 자녀학교 CAG (Christian Academy of Guatemala)의 CAG 크리스마스 Concert 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특별했습니다. CAG 는 지난 2 년에 걸친 Covid 상황으로 live 콘서트를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live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그전에도 기도제목으로 나눈바 있었지만, 사실 CAG 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니 작년 한해를 마무리지면서 많은 기도제목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2021 학기가 끝나면서 많은 교사들이, 특별히 전체 35 명의 CAG 교사들 중 20 명 정도의 교사들이 Covid 의 여파로 선교비가 줄어들기도 하고, 몸이 아프시기도 하고, 또는 다른 이유들과 또 은퇴하심으로써 CAG 에서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치던 사역을 중단하시고 미국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해서 2022 년 새학기에 충분한 선교사 teacher 들이 과테말라 선교지에 오실수 있는지 불투명했었고, CAG 만 아니라 과테말라에 있는 많은 미국 선교사들이 어린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15 명의 새교사들이 월급도 줄수 없는(^.^) 과테말라 CAG 에 오게 되 (사실 CAG 는 MK 학교래서 교사들에게는 teaching 사례비도 주지 않는 믿음 선교를 실천하는 MK 학교입니다만), 15 명의 헌신적인 교사들이 20 명이 나누어서 하던 일들을 너무 훌륭하게 헌신해 감당했고, 특별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선교사로 오신 Kyle Babb 교사는 많은 준비로 이번 CAG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열게 하였고, 많은 학생들의 참여로 또 많은 CAG 선교 공동체 멤버들에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동행을 기쁨으로 축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이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신, 그리고 과테말라의 선교사들과 함께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던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b. La Iglesia de Resurrección de Basurero Pueblo (쓰레기 매립장 마을의 회복교회의 주일 학교 졸업식...**

선교사 자녀학교인 CAG 에서의 크리스마스 컨서트 3 일 후인 12 월 11 일 주일에는 저희가 10 년째 함께 사역하고 있는 Basurero 마을 (한국의 옛날 난지도와 같은 쓰레기 매립장 마을)의 La Restauracion 교회의 어린이 성경공부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 월부터 지금까지 참석해 성경을 배우고 찬양을 배웠던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간단한 선물도 전달하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최형미 선교사가 CAG 의 교장일로 바빴지만 매주 목요일 이 Restauracion 교회의 어린이들과 또 인도하는 Carlos 목사님의 딸 Karin 자매와 함께 사역을 하였었고, 하나님께서는 지난 1 년동안의 변함없이 꾸준히 사역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과테말라 시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졸업식에 참석하는 어린이들을 가장 좋은 옷을 입게 한 부모들 역시, 아이들이 찬양하는 것, 성경귀절을 외우는 것을 카메라로 담기 바빴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자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불과 몇일전 모든 것이 미국적인 선교사 자녀 학교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보다는 많은 것들이 모자랐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임재는 동일하게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저는 요한 복음 1장 5절 말씀을 인용해 어둠이 가득한 이 쓰레기 마을에서지만, 이 아이들에게 참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해 그들의 삶, 이 공동체의 삶, 이 과테말라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주께서 키워주실 것을 믿는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도 주님의 영광의 빛은 변함이 없으며, 주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며 살롬인 것을 다시 확인 할수 있었습니다.

#### 4. 최남용 최형미 선교사의 기도제목들

**먼저 감사의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 최남용 선교사가 2022년 1월 31일에 있었던 뇌졸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회복된것을 감사드립니다.
2. 최형미 선교사 역시 어려운 중에 있던 CAG(Christian Academy of Guatemala)에서 새로 맡게 된 교장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3. 첫째 한솔, 그리고 둘째 한얼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들의 사역과 공부를 무사히 하고 있음을 보며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4. 또한 지난 10년 동안 함께 사역하였던 회복교회 (La Resurrecion 교회) Carlos 목사님과 Yoli 사모님, 또한 Karin 과 온 가족들과 귀한 동질감과 신뢰 관계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 기도제목

위의 감사제목을 나눈후 올해에는 **단 한가지 기도제목을** 부탁드립니다.

뇌졸중가운데 하늘 본향에 혹시 들어가게 될지 모른다 생각하면서 가장 크게 배운것은 죽음이 곧 이 땅에서의 모든 경주들을 마치고 천국 본향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였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면 이 땅에에서의 모든 것을 중단하고 감사가운데 믿음과 기쁨가운데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피부로 느낄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할일이 있으셔서, 1년의 주신다면, 또는 5년에서 10년의 시간을 주신다면 또한 동일한 감사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며 그분의 이름을,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운데 기도제목을 나눈다면 이제 새해인 **2023년에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들, 사역들을, 하나 하나 주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나눌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뇌졸중 후 언어재활 훈련후 아빠를 염려해 달려온 한솔, 한얼과 엘살바도르의 La Libertad 이란 작은 어촌 마을에서 가족 retreat 을 갖은 후 찍은 가족 사진